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거리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특별기고

강증산과 ‘사람 둘’

한말 선각자로 하늘의 사람인 강증산 선생은 1909년 6월 20일(음력) 천지공사가 끝났다고 제자들에게 선언하니 제자들 한 사람이 '그러시다면 세상에 나서서 천지개벽 하시옵소서'라고 청하였으나 '사람 둘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노라'라고 하였다. 이는 강증산 이후에 두 사람이 더 나온다는 것을 말한다. 두 사람은 바로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궁궁 율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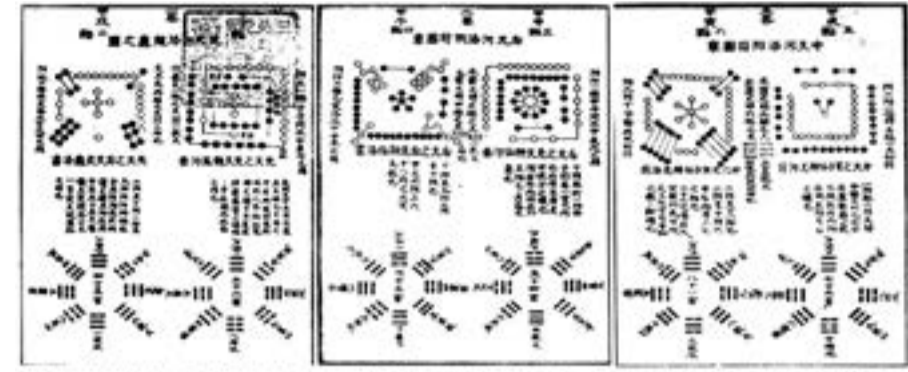
'목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다. 구천지 삼국 대원대한'이라고 증산 선생이 말한 바와 같이, 이는 새 하늘은 사람 살리는 공사만 보고 있다. 신천지 상생 대자대비라는 말이 된다. 여기서 목은 하늘이란 마귀를 말하며 새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는 마음의 비밀 즉 심법을 득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사람 속에 마귀가 나라는 자리에 앉아 나라는 의식이 되어 나를 주장하고 있다.

성경에는 에덴동산(천국)에 아담과 헤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천국에는 인간은 살 수 없는 고로 아담과 헤와는 인간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원체가 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아담·헤와 하나님이 삼위일체(삼신일체) 하나님이 되어 있었으니 이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삼즉일 일즉삼(三即一 一即三)이다.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이다.

선천과 후천의 쇠병사정(衰病死葬)이 중천에 와서 물러간다

신천신지를 이루기 위해 하늘의 사람

육도삼략	
1략(선천)	
1도 복희	2도 문왕
쇠병사정 불면	
2략(후천)	
3도 수운(水雲)	4도 화운(火雲)
쇠병사정 불면	
3략(중천)	
5도 목운(木運)	6도 금운(金運)
쇠병사정 되거	



하도략서(河圖洛書)를 근간으로 하는 「육도삼략六韜三略 운행도運行圖」

을 통해 천지공사를 행하니 이른바 하나님의 계획표가 되는 육도삼략이 있다.

3략(중천)의 목운(木運)과 금운(金運)으로 오는 분이 화운 강증산 선생 이후의 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강증산 선생은 의통 한 벌을 박공우(朴公友)에게 전하면서 나중에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이는 강증산 선생 속에 있던 상제(미륵불)가 박공우(朴公友)로 상징되는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뜻하니(의통은 사람 살리는 법통이다) 박공우(朴公友)라는 이름을 보면 또(又) 박공(朴公)에게로 간다는 말인 고로 하나님이 화운 다음의 목운으로 온다는 의미가 된다. 의통이라는 것이 마귀를 죽여 사람을 살린다는 영물(靈物)이요 하나님의 전유물이므로 사람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의통(醫統)이 감로해인이며 감로해인은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이다. 감로해인의 본체가 마귀를 이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다름이 없다. 따라서 목운(木運)으로 온 박공이 바로 박태선이다. 전도관을 세워 도를 금운(金運)에게 전하고 율법 금운이 궁궁 목운과 하나가 되어 궁궁 율법을 이룬다. 이른바 궁을 삼심 정도령이 된다.

목운 뒤에 여인 한 분이 먼저 도를 전해 받고 목운의 지시에 따라 목운과 더불어 금운을 키워 무극대도를 완성케 하는 것이다. 여인으로 온 분은 여인이라 세상에 드러나서 천지역사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삼 단계를 거쳐 완성이 되니 삼즉일

일즉삼이 완성되었다. 금산사의 외관이 삼층으로 지어진 것도 다 이런 이치가 있는 것이다. 궁궁 율법이 불사영생의 진리를 살하는 곳의 내부도 이와 같은 이치를 반영하여 지어져 있다.

증산선생은 '차마 밑에서 대 도통한다'고 하였다. 차마가 궁궁이요 대도통한 자가 율법을 궁궁과 하나가 되어 궁궁 율법이 되니 완성의 미륵불이요 삼신상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윤의 도수와 문왕도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만 한다면 그저 추론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증산선생이 말씀한 대두목(정도령 궁궁 율법을 미륵불)에게는 도수가 붙어 있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이윤의 도수와 문왕도수가 그것이다. 먼저 이윤의 도수를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 하나라 마지막 왕 폭군 절왕은 정사를 제대로 보지 않아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마음속에 목은 하늘이 되는 마귀가 있으면 그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 불안 등 고통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에 이윤이라는 사람이 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절왕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탕을 임금으로 내세우니 상나라 건국이 되었다. 이는 이윤이 50세 때의 일이다. 이윤의 도수는 오십이 지사십구년지비(五十而四十九年之非) 즉 50에 이르러 49년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말인 즉 대두목(정도령 궁궁 율법)은 50세에 대 도통을 한다는 것을 말하며, 마음

속에 절왕과 같은 목은 하늘이 되는 마귀가 나라는 자리에 좌정하여 나라는 의식이 되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불안 근심 걱정 등 고통스러운데 절왕과 같은 마귀를 끌어 내리고 탕과 같은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는 것(대도통)이 오십세에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문왕도수는 칠년육고령을 말하므로 실제로 50세에 도통하신 그분은 칠년육고령을 치르게 된다. 주나라 문왕이 은나라 마지막 폭군 주왕(紂王)의 마음을 받아 '유리'라는 곳에 칠년 감금당한 것을 말하면서 정도령(미륵불)은 칠년육고령을 치르게 된다고 했던 것이다. 기존의 모든 도와 교가 죽어 천당을 주장하나 정도령은 살아 천당을 살하니 이에 음해 핍박을 받아 칠년육고령을 치르는 것이다. 이후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들도 흩어지고 적막강산처럼 한적하게 되어 버리게 된다. 이는 증산선생의 진주놀음에 독조사도수를 말하면서 '돈만 잃어 바닥 난후 개평을 뜯어 새벽녘에 회복하는 수가 있으니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느니라'라고 한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륵불(정도령 궁궁 율법)은 오십에 도통하고 칠년육고령을 치르게 된다. 기존의 모든 도와 교는 죽어 천당 극락 간다고 하지만 이는 비진리이다. 미륵불은 살아 천당 가는 진리를 살한다. '불심을 품어라'라는 말은 마구니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이며 곧 마구니이니마구니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 부처가 마구니 마음을 품을 수 없으며 마구니가 부처마음을 품을 수 없다. 미륵불의 감로해인을 받으면 나라는 자리에 있는 마구니 즉 목은 하늘이 점점 약해져 마침내 죽어버리고 부처님이 좌정하면 그대로 천당 극락인 것이다. 이것이 천지개벽의 핵심이다. 미륵불을 만나 감로해인(의통)을 받아먹으면 사망의 신인 목은 하늘이 죽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다. 미륵불을 받드시 만나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서연구가 박명하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주님의 보광은 백보좌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

2004년 6월 19일에 주님께서 보광하신 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새롭게 인지할 수 있었고 보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와 차원이 다른 온전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주님 말씀 중에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여러분들은 언제가는 나를 못 볼 때

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사람이 빛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변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빛으로 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구세주 역사를 할 때에는 이런 저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찰해달라고 하면 안

찰도 해주고 이런 저런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하는데 몸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세주는 분신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묶여놓아 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속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백보좌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

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인 것입니다."

승리제단 역사는 하나가 되는 역사이다. 나와 내가 따로 있고 분열이 있고 서로 못마땅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나라는 마귀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고 모두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용서와 희생으로 가득찬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빛을 지닌 자요, 주님과 하나가 된 구세주 하나님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60>

“하나님은 절대 순종의 상징”

아기가 태어날 때 삼신할머니한테 매를 맞아서 아기의 볼기짜이 시퍼렇다고 말하는데 삼신할머니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도 시온성의 처녀들이라고 하였고 동정녀라 하였는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리켜 동정녀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순종의

상징의 신인고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나의 전체를 맡기는 역사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나의 생명과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고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신 것이다.*

이기는 삶

말은 인격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여 일가친척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치 지도자가 세 치 혀를 잘못 놀려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경우도 있으며, 외교관의 세 치 혀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경우도 있다.

고려를 침입한 거란의 대군을 되돌려 보낸 서희의 외교 담판(談判)은 말의 위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물론 서희의 말은 고려와 거란을 둘러싼 주변 국가의 동태를 정확하게 꿰뚫는 혜안으로 논리정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비수로 꽂히기도 하고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올 때는 자기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누구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는데, 우리 애는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지"와 같은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부모에 대한 불신감만 심어줄 뿐이다. 한 편 부모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할 말도 있다. 아이가 잘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칭찬해주고 아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말은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엄마 아빠의 칭찬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걸 알면 서도 칭찬에 인색한 부모들이 많다.

아이의 성적(成績)이 좋지 않다고 하여 무턱대고 짜증부터 내기보다는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 공부에 하루아침에 잘할 수가 없다.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

히 공부 방법과 생활습관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짜증을 내면서 야단(懲罰)치는 것보다 위로(慰勞)해주면서 격려(激勵)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말은 인격(人格)이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품(人品)과 교양(教養)이 그대로 녹아 있다. 말버릇을 중심으로 나눠볼 때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만(傲慢)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주로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화해(和解)와 용서(容恕)가 뒤따르고 포용(包容)과 상생(相生)이 논 의된다.

이에 비해 입만 열었다 하면 남의 흉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랑만 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며 불만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남의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자기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대부분 분란만 일으킨다. 이 두 유형의 사람 중 어느 쪽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는 분명하다.

말은 생각을 담은 그릇이다.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부터 다르다. 그들의 말은 늘 확신에 차 있고 긍정과 낙관으로 가득하다. 인간의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말에는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품위 있는 언어 습관은 명문대학 졸업장보다도 더 확실한 성공 보증서라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구세주 예배 말씀집 [9]

<구세주 예배 말씀집 9집>은 주님께서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본부제단에서 예배 인도하신 설교말씀을 가감없이 녹취한 30편입니다.

6월 19일 보광절에 맞추어 본부제단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국제단의 승사님과 성도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승리신문사 편집부 일동 올림

